



해외 시장 확대와 기술 역량 고도화 추진

두산중공업(주)

해외 원전 시장 확대

지구 온난화 가속화 전망에 따라 기후 변화 대응이 국제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르네상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미국, 중국, 터키에서는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발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규 원전 도입을 반대해 왔던 유럽의 각국들도 앞다투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구체화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2009년도 한 해에도 두산중공업은 원자력 르네상스를 효과적 사업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Westinghouse

등 해외 Major 원전 공급사와 기존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한수원 및 관련사들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진행중인 신규 원전 건설 Project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08년 성과

2008년에는 수주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해외 시장에서는 30년만에 재개된 미국의 신규 원전 건설 시장에서 최초로 발주된 AP1000 Vogtle 3,4호기용 핵심 기자재인 원자로와 증기발생기를 5월에 수주하였고, 연이어 V.C. Summer 2,3호기를 6월에, 그리고 Levy 1,2호기를 7월에 수주하여

미국 신규 원전 건설 시장에서 최초로 발주된 6호기 전량에 대한 원자로 및 증기발생기를 수주하는 계약을 올렸다.

이러한 수주 성과는 지난 30년간 국내 원전 사업을 통해 축적한 원전 기자재 제작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2009년도에도 Westinghouse와 협력 관계를 유지/강화하는 한편 고객 밀착형 수주 활동을 펼쳐 지난해에 버금가는 성과를 일구어낼 수 있도록 매진할 예정이다.

2007년 산면#1 & 하이양#1 신규 원전의 핵심 주기기를 수주한 바 있는 중국 시장에서는 작년 중국핵기공정공사(SNPEC, 2월) 및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 5월)와 원전기기 공급 및 마케팅 분야 등 원전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전

략적 협력 의향서(Agreement on Strategic Cooperation)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SNPEC 및 CNNC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와 중국 AP1000 사업 수행을 기반으로 금년에도 중국에서의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CASK 시장에서도 작년 4월에 일본의 OCL(Ocean Cask Lease Corporation)과 JAPC(일본원자력발전사)에 사용될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기(CASK)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원전업계 최초로 일본 시장에 진출한 실적을 바탕으로 금년에도 일본 내 CASK 시장 확대를 위해 수주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및 한전을 비롯한 국내 원전 산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OPR1000 및 APR1400의 수출을 위해 UAE, 터키, 요르단, 태국, 베트남 등 최초로 원전을 도입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원전 건설 타당성 조사 및 국내 원전 홍보 사업 등 사전 수주 활동에 서부터 입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시장에서는 고리 RSG 공사 이후 두 번째인 울진 1, 2호기 RSG 교체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고, 금년에는 신울진 1,2호기 주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따라서 두산중공업은 현재 진행

중인 신고리 1, 2 / 신월성 1, 2 / 신고리 3, 4 Project와 함께 신규로 계약 예정인 신울진 1, 2호기 등 국내 Project용 기자재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공장 Capacity 증대 및 생산 표준화

수주 물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기자재 공급을 위해 공장 Capacity 증대 계획을 전년도에 확정하였고 금년도에는 공장 신, 증설 및 설비 확충 등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며, 설비 확장이 완료되면 두산중공업의 원자로 및 증기발생기 등 원전 핵심 기자재 제작 능력은 현재보다 배 이상 증대될 것이다.

이와 함께 최상의 품질을 갖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System의 Global Standard화를 추진하여 두산중공업만의 제작 핵심 역량을 한층 강화시켜나갈 계획이다.

기술 역량 고도화 추진

두산중공업은 2009년도에도 작년에 이어 서비스 정비 보수 기술 확보, RCP & MMIS(I&C) 국산화 및 차세대 원자로(NGNP/APR+) 설계/제작 기술 개발 분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재 가동중인 발전소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Alloy 600 정비 보수 기술 등 국내 미확보 기술 개발을 통해 서비스 정비 역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과제로 추진중인 RCP 국산화는 작년의 축소 모델에 이어 금년도에는 실증 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며, MMIS 기술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금년에는 Project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중인 차세대 원자로 노형 설계(APR+)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고유 노형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미국에서 추진중인 차세대 원자로(NGNP) 기술 개발 참여를 통해 차세대 원전 기자재 공급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2009년도 두산중공업은 **◆ 사업 Portfolio 고도화를 통한 해외 신규 시장 확대, 서비스 시장 참여 기반 확대 및 I&C 사업 기반 확대** **◆ 기술 역량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정비 기술 확보, RCP & MMIS 국산화 및 차세대 원자로 설계/제작 기술 개발** **◆ Business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공장 Capacity 증대, 생산 System의 Global Standard화 구축 등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갖춘 기자재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